



청송심씨 심벌마크

青松沈氏宗報

발행인 : 회장 심대평
편집인 : 문화이사 심갑택
서울시 중구 을지로30길 47,
찬경회관 5층
전화 : (02) 2267-7857
(02) 2267-9339
F A X : (02) 2269-7755
인쇄 : SNS인쇄
02-2277-0245

격월간 제143호(1955년 7월 5일 창간)

홈페이지 | www.csshim.or.kr

2020년 5월 30일(토)

정기총회 7월중 개최하기로

2020년도 제68회 이사회 개최... 코로나로 상황이 여의치 않을 때에는 재검토



대총회는 2020.5.27.(수) 성균관컨벤션웨딩홀(3층)에서 2020년도 제68회 이사회를 개최하고, 전년도 종무 및 결산에 대한 감사보고에 이어 2019년도 사업실적 및 예산결산, 2020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임원(회장단, 이사 등)추천, 정기총회 개최일정 등 부의안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심의·의결하였다.

부의안건	의결내용
1. 2019년도 사업실적 및 예산결산	1. 원안 의결
2. 2020년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안	2. 원안 의결 ※ 2020년도 주요사업계획 ○ 5층요소 2단소 및 위토 수호관리 ○ 인터넷족보 수단접수 및 등재 - 수단 접수기간 : 2020.10.30.까지 ○ 13상신의 묘역 등 선조유물·유적 관리 및 조사를 위한 대책단 편성운용 - 영의정 순택선조 묘역 최우선 관리 ○ "연회비 1만원후원 회원제" 운용
3. 임원선출(추천)건	3. 금년도 임기가 만료되는 현 임원(회장단, 이사 등)을 모두 연장 선출(추천)하기로 함
4. 정기총회 개최일정	4. 정기총회는 7월중에 개최하기로 하되, 코로나19 상황이 여의치 않을 때에는 회장단회의에서 재검토하여 대책을 강구하기로 함

2020년도 제1차 회장단회의 개최



대총회는 2020.5.7.(목) 동보성에서 2020년도 제1차 회장단회의를 개최하고, 2019년도 사업실적 및 예산결산, 2020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임원선출(회장단, 이사 등)추천, 도기동산성문화재 토지보상금 협의, 이사회 및 정기총회 개최일정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토론과정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다

부의안건	의결내용
1. 2019년도 사업실적 및 예산결산	1. 원안 의결
2. 2020년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안	2. 원안 의결 ※ 위 이사회 의결내용과 같음
3. 임원선출(추천)건	3. 원안 의결 ※ 위 이사회 의결내용과 같음
4. 도기동산성 문화재 토지보상금 협의건	4. 안성시에서 도기동산성문화재로 지정된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금 협의를 요청한데 대하여 이를 추진하기로 함.
5. 이사회 및 정기총회 일정	5. 이사회는 2020.5.27(수) 개최하기로 하고, 정기총회는 6.18(목)개최하기로 잠정적으로 정하되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하기로 함

할아버지가 들려주는 우리 청송심가 이야기(13)

자기 자신을 이기자

봉원(逢源) 할아버지의 심기안정법(心氣安定法)



沈厚燮

아동문학가·교육학박사

애야, 너는 자신을 잘 가꾸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해본 적이 있지? 즉 어떻게 하면 지혜로워지거나 건강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 계획을 세워 그대로 실천해 본 적이 있느냐 하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계획을 세우기는 하지. 그런데 며칠 가지 못하고 흐지브지 말아 넣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 이런 경우에 우리는 작심삼일(作心三日)이라고 해. ‘한번 결심한 일을 겨우 3일에 그친다’는 뜻이지.

그런데 이 말은 우리 9세조 봉원 할아버지에게는 통하지 않았어. 봉원 할아버지는 한번 결심한 일은 돌아가시는 날까지도 끝까지 지키셨어.

봉원 할아버지는 1497년(연산군 3)에 태어나서 1574년(선조 7)년에 돌아가셨으니 78세를 사셨어. 의약이 제대로 발달하지 못한 그 당시 형편으로는 아주 장수하셨다고 볼 수 있어. 그 무렵에는 평균 수명이 매우 짧아서 61세만 되어도 잔치를 열 정도였고, 좋은 음식에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임금이라 하더라도 4-50을 채 넘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거든.

봉원 할아버지는 영의정을 지낸 회(澮) 할아버지의 증손자로서 조부님은 원(緩), 아버지는 사인(舍人) 순문(順門)이셨어. 어머니는 평산신씨(平山申氏) 감찰 신영석(申永錫)의 따님이셨고... 영의정 연원(連源) 할아버지의 동생이며 좌의정 통원(通源) 할아버지의 형님이기도 하시지.

장가 든 후 다르게 불리는 이름인 자(字)는 희용(希容), 일반적으로 불리는 호(號)는 효창노인(曉窓老人) 또는 우송(友松)이셨어. 이 호에는 아침 일찍 일어나 소나무와 더불어 지낸다는 뜻이 들어있어.

어려서는 매우 개구쟁이어서 악동들과 어울려 놀기를 즐겼다고 해. 참외서리를 하다가 하마터면 관가로 잡혀갈 뻔 했다고도 해. 그래서 어머니로부터 여러 번 훈이 났다는 구나.

그러던 어느 날 봉원 할아버지는 무릎을 치며 주먹을 굳게 쥐셨대.

“아이고, 이러다가는 내가 사람 구실을 제대로 하지 못하겠구나.”

그 뒤부터는 굳은 마음으로 열심히 책을 읽어서 마침내 스무 살이 되었을 때에는 성균관에 들어가 학문을 익힐 수 있게 되셨어.

1537년(중종 32) 별시문과에 을과로 급제하여 성균관학유(成均館學諭)가 되었고 의정부사록(議政府司錄)을 겸하셨고, 이듬해 탁영시(擢英試)에 병과로 발탁되어 사과(司果)에 제수되셨어.

그 뒤 정언(正言)을 거쳐 인종이 즉위하자, 헌납(獻納)이 되어 경연에서 기묘사화 때 억울하게 처단된 조광조(趙光祖)의 신원을 회복시키

도록 하셨어.

명종이 즉위하였을 때에는 소윤(小尹)의 편에서 서서 대윤(大尹)의 거두로서 권세를 부리던 유인숙(柳仁淑) 등을 탄핵하는데도 참여하셨어.

이어서 장령(掌令)·교리(校理)·사간·사예(司藝)·전한(典翰) 등 요직을 두루 역임하

올릴 수 있게 되었는데 <논어(論語)>를 비롯한 많은 책을 보지 않고도 끝까지 다 외우실 정도였다고 해. 그러니 봉원 할아버지의 심기가 얼마나 굳은 지를 짐작할 수 있어.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에 있는 봉원 할아버지의 묘소 앞 묘비에는 다음과 같은 직함이 새겨



봉원 할아버지 묘소(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소재)

시고, 1553년(명종 8) 승정원에 들어가 왕의 측근에서 오랫동안 보필하셨어. 그 뒤 예조참의·동지돈녕부사를 역임하다가 노환으로 사임하셨어.

벼슬에서 물러난 뒤에는 화산(華山) 기슭에 집을 짓고 산수(山水)를 즐기며 여생을 보내셨는데 하얀 수염을 날리며 가벼운 몸으로 산을 오르내리셨대. 그래서 사람들은 봉원 할아버지를 가리켜 ‘신선(神仙)이다, 도사(道士)이다.’라고 불렀대.

그런데 이는 그냥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었어. 옷은 반드시 무게를 달아 무겁지도 않고 가볍지도 않게 지어 입었으며 밥도 반드시 숟가락을 세워서 먹었으며, 씹는 것도 그 속도나 회수가 정해져 있었다고 해. 뿐만 아니라 동작과 휴식 또한 알맞게 조절하였고 마음을 쓰는 것도 결코 무리하지 않으셨대.

마음을 가라앉히는 한편 음률(音律)·의술(醫術)·서법(書法)등을 갈고 닦으셔서 또한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셨어.

이렇게 규칙적인 생활을 하신 데에는 봉원 할아버지가 서른 살에 병이 들어 10년간 폐인 노릇을 하면서 터득한 심기안정법을 꾸준히 체질화하신 덕분이래. 심기안정법이라는 마음에서 일으키는 욕심을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게 조절하는 법이래.

대제학 노수신(盧守愼, 1515~1590)이 쓴 봉원 할아버지의 묘비명에 따르면 젊었을 때에는 병이 들어 제대로 걷지 못해 옷을 끌고 다니는 것처럼 보였으나 굳은 마음으로 자신의 몸을 추슬러 십여 년 전에 읽었던 책도 모두 또렷이 떠

져 있어.

贈崇政大夫議政府左贊成 兼 判義禁府事世子貳師弘文館大提學知經筵春秋館成均館事行嘉善大夫 同知敦寧府事(증승정대부의정부좌찬성 겸 판의금부사세자이사흥문관대제학지경연춘추관성균관사행가선대부 동지돈녕부사)

靑松沈公諱逢源 贈貞敬夫人慶州金氏之墓(청송심공휘봉원 증정경부인경주김씨묘)

그래, 그러고 보니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이겨내는 사람이다.’라는 말이 떠오르는구나. 사람은 더러 나쁜 유혹에 빠져 자신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있지. 언제나 철저한 자기 관리가 중요하구나.



봉원 할아버지 묘비

인터넷 족보(族譜) 수단안내

청송심씨의 혈통과 조상님의 훌륭한 업적이 수록된 대동세보(족보)를 5년 전에 일제 정비한 바 있으나 그동안 출생, 사망, 결혼, 이장(移葬), 추가경력 등 변경사항이 발생되어 이를 족보에 새로이 등재 또는 수정하고자 하시는 일가 분께서는 이번에 빠짐없이 수단(收單)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등재신청 안내

1. 수단 접수기간 : 2020년5월1일~10월30일

2. 제출서류

- 가. 인터넷족보 수단용지 (별지서식)
- 나. 가족관계증명원, 재적등본, 기타 등재관련 증빙서류
- * 족보등재는 공문서 내용을 기준으로 하며, 가승 등 사문서 등은 원칙적으로 인

정하지 않습니다
다. 수단금 납부 증빙서류 또는 납부확인서

3. 제출방법

- 가. 우 편 : 서울 중구 을지로 30길47. (찬경회관 5층)
- 나. 팩 스 : 02-2269-7755
- 다. 메 일 : set217@naver.com

4. 수단작성 방법

“청송심씨중보” 또는 “청송심씨대중회” 홈페이지의 「정보자료실 메뉴 21」에 공지한 수단용지(갑,을)를 출력하여 작성요령에 따라 상세히 작성 바랍니다
* 「정보자료실메뉴22」의 수단작성(견본) 참조

5. 수단금 납부

- 가. 수단금 : 관(冠) 20,000원, 동(童) 15,000

원, 수정(修正) 10,000원

* 관은 기혼자(배우자 포함), 동은 미혼자, 수정은 기 등재자에 대한 추가(예, 배우자 등재) 잘못된 내용을 바로잡는 것을 말합니다.

나. 입금계좌 : 농협 301-2267-7857-81
예금주 : 청송심씨대중회(족보)

6. 유의사항

- 가. 수단록 제출 시 수단금 납부 영수증사본 등 납부확인서류를 동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온라인 입금 시에는 납부일자, 입금액, 금액 등을 유선으로 통보도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중회 총무이사에게 문의바랍니다.
- * 연락처 : 02-2267-7857, 010-5591-0055

'19년장학기부금 명단 (2019.1.1~2019.8.20): 재단설립 전

날짜	기부자명	금액
	전기이월	55,690,000
01-07	부사공중회(회장재운)	1,000,000
02-27	신천공파중회	100,000
03-13	심재금(대중회고문)	1,200,000
04-06	심극택(경기)	100,000
	계	58,090,000

2019년 청심장학회 기부금 명단

날짜	기부자명	금액
08-21	청송심씨대중회 출연금	58,012,066
09-10	심규선(중보편집위원장)	3,000,000
09-10	심재봉(창원중회 고문)	1,000,000
10-31	이경공중회(회장 재창)	1,500,000
10-31	곡산공중회(회장 재갑)	1,500,000
12-19	심규오(예천)	1,000,000
12-23	진천월촌중회(회장 상영)	300,000
12-24	심재규(대중회 부회장)	1,000,000
12-24	광주 청광회(회장 재규)	1,000,000
12-24	심오택(장학운영위원장)	200,000
12-24	심은석(장학운영위원)	200,000
12-24	심규정(장학운영위원)	200,000
12-24	심상억(장학운영위원)	200,000
12-24	임성호(장학운영위원)	200,000
	계	69,312,066

2020년 청심장학회 기부금 명단

날짜	기부자명	금액
01-09	심무석(서울)	1,000,000
01-09	심대민(서울)	1,000,000
02-17	부사공중회(회장 재운)	1,500,000
02-20	오산 시정공중회(회장 익섭)	3,000,000
03-05	2/28 신천공파중회(회장 재필)	100,000
03-12	심재섭(이사)	1,000,000
04-13	심극택(서울)	100,000
04-13	심상경(이사)	1,000,000
04-17	심은석(장학운영위원)	200,000
04-29	이경공파중중	300,000
	계	9,200,000

대중회 장학기부금(한마음백서)

2020.5.31현재: 19,020,000원

금액	기부자명	금액	기부자명	금액	기부자명
2,000,000	심대평	100,000	심진섭	30,000	심재성
1,000,000	내금위중회		심재중		심재만
	익명(대구)		심주걸		심영보
940,000	창원사복시정공파중회		심상학		심영희
800,000	청심회		심기섭	20,000	심재인
600,000	광주청광회		심학섭		심문보
520,000	공숙공중회		심윤정		심범식
500,000	심재섭		심금택		심상진
400,000	광주송암중회		심희준		심광열
	판사공중회		심만섭		심상욱
	인동중회		심우찬		심금배
	진해중회		심미정		심산태
	지성주사공중회		심영수		심상흙
320,000	부사공중회		심청이		심민섭
300,000	심성식	90,000	심정섭		심홍섭
	용인중회	60,000	심일섭		심재석
	충남이산중회		심경진		심연희
200,000	부평공중회		고창현감중회		심영섭
	심동섭(철원)		경남중회		심현섭
	심가영(심가희)		심규동		심현섭
	심우식(곡성)		심준섭		심광섭
	심정임		심욱한		심해성
	심광섭(청송)	50,000	심윤보		심억수
	부산중회		심도섭		심숙희
	의령중회		심명희		심규익
	경남중회		심영보		심기영
	심철보		심중섭		심재광
	청주중회		심경택		심상범
	심재상		심한섭		심재울
	예천군중회		심무섭		심평택
	인수부윤공중회		심상택		심정행
	심의두		심은용		심규선
	오산사복시정공중회		심향섭		심현근
	춘천중회		심용식		심수섭
	광주금당산중회		심재홍		심재기
	곡산공파중중		심미정		심천석
180,000	충주중회	40,000	심정훈		심재춘
160,000	현령공파		심이섭		심호용
140,000	대구중회		심명섭		심재수
120,000	심홍식		심언춘		심창호
100,000	정이공중회	30,000	심국향		심춘환
	좌승지공중회		심철유		심관영
	도사공파중회		심웅근		



축하합니다

(재)청심장학회 제 1회 장학생인 심지훈 학생은 영남대학교 기계공학부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포스코 A&C 회사에 입사했으며, 심지수 학생은 한양대학교 산업공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대학원 산업공학과에 합격하여 경제성분석 연구실에서 연구에 열중하고 있다.

제1회 청심장학회 장학생으로 무한한 영광과 축하를 보내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한다.



沈영감 심민섭

오래 만에 산에 올라간다

왜 이제 왔느냐?

코로나19 때문에...

그래서 조상님과 거리드기냐?

일송상공—松相公 좌의정 沈喜壽(심희수, 1548~1622)

- 남쪽엔 이순신, 북쪽엔 심희수 -



沈載錫 (문학박사)

I. 금산군수 심희수 거사비(去思碑)를 찾아가니 :



심희수거사비 전면 (2020.5.6)

금산향교 앞에 수십 기의 비석들이 두 줄로 늘어서 있다. 이 중에 아랫단이 시멘트 바닥에 묻힌 채 서 있는 심희수 거사비는 여기서 가장 오래된 듯, 뒷면의 글자가 판독하기 어려울 정도로 마모되었다.

일송은 2년간의 鎭山 근무를 마치고 귀경한 지 20여 년 후, 좌의정이 되었다(1606년). 이 거사비는 일송의 좌상 승진을 기념하여 세웠다. 비문의 제목은 <前郡守沈政丞喜壽去思碑>이나, 뒷면의 내용이 마모로 인해 잘 안 보인다. 희미하게 보이는 “천년이 지나도 어찌 그 은덕을 잊을 수 있겠는가(千載載而不能忘)”, “이 작은 돌에 어떻게 그 덕을 새기랴(一片石不足表其德)” 등의 구절로 전체 비문의 내용을 짐작할 수 있다.

일송이 금산에서 근무할 때 쓴 것으로 보이는 글은 거의 없으나, 시 한수가 찾아진다. “五斗米 때문에 벼슬살이 오래하니, 귀거래사 읊을 이유가 없네(· · ·) 외로운 그림자 이미 남쪽으로 왔네. <<次鎭山東軒韻>> 「一松集」.” 이 시를 통해 일송의 금산군수 시절은 그리 즐겁지 않았던 것으로 느껴진다. 이곳으로 좌천된 일송은 시골이지만 일이 많아서 시를 쓸 시간조차 많지 않다고 툴툴 거리고 있다.

II. 大提學 심희수는 만고의 清白吏였다 : 一松은 심문이 배출한 13정승 중 유일한 대제학이다. 그리고 沈宜臣과 더불어 심문의 청백리였다. 심 씨 집안의 청백리는 청성백을 필두로 다수가 있지만, 공적인 기록에 두 분이 꼽힌다. 공이 서거한 후 94세에 서거한 정경부인 光州盧氏(1543~1636)는 말년에 친척집에 몸을 의탁해야 할 처지여서, 국왕이 음식을 하사한 일도 있었다(「인조실록」 9/7/4. 실록에는 99세라 함). 좌의정을 지낸 沈一松이 얼마나 청백리였는지를 여실히 증명하는 광경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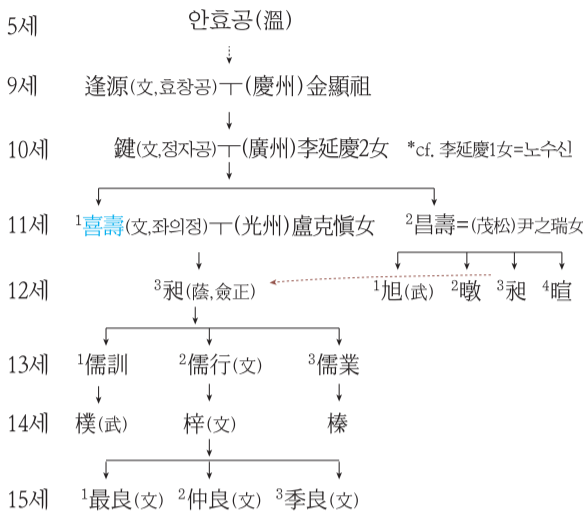


심희수초상 (2018. 영정포쇄 시)

일송은 “용모가 아름다웠고 우스개를 잘 하였고, 재주가 남들보다 뛰어났고 典故를 잘 알았으며, 文才가 어려서 일찍 이루어졌다.”고 한다(「日記」 14/5/17. <沈喜壽卒記>). 그리고 일송은 靑陽君 沈義謙과 더불어 호당(湖堂, 독서당)에 선받던 수재였다.

III. 심희수 간략 계보와 연보

① 간략 계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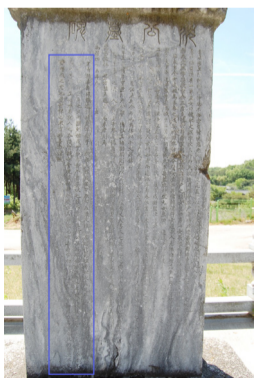


② 간략 연보

시기	나이	주요연보
1548(명종 3)	1	출생
1550(명종 5)	3	부친 沈鍵 별세
1572(선조 5)	25	대과 급제(병과 4등)
1584(선조 17)	37	금산군수(전거: 심희수묘지명)
1591(선조 24)	44	응교, 장령
1593(선조 26)~1600(선조 33)	46~53	(임진왜란)도승지/대사헌/이·호·예·형·공조판서 *唯兵判不任
1604(선조 37)	57	우의정
1606(선조 39)	59	좌의정 ※ 1607년, 금산에 <거사비> 건립
1608(광해즉위년)	61	우의정
1616(광해 8)~1619(광해 11)	69~72	허균의 '종계변무'에 대한 반박으로 3년간 문외출송됨.
1622(광해 14)	75	판중추부사, 둔지산 은거 중 별세

IV. 심희수의 祖父 '효창노인 심봉원(沈逢源)과 부친 심건(沈鍵), 모친 광주이씨(廣州李氏)

① 조부 심봉원은 급제한 이후 정언, 장령 등 청요직을 두루 거쳤다. 불교 兩宗과 禪宗을 다시 개창할 것을 건의한 바 있고(「명종실록」 6/1/18), 풍수설을 멀리 하였다(「명종실록」 6/1/18). 57세에 당상관인 승지가 되었다. 회갑 때는 정3품인 예조 참의였으며, 67세에는 명종대왕의 특별명령으로 '同知敦寧府事(종2품)'에 임명되었다. 효창공 사후 42년에, 손자 일송이 70세였을 때 문외출송 중에 조부의 비석을 세웠다. 효창공 비문은 이미 노수신이 작성했으나, 이 때 약간의 글자 첨삭을 하여 세운 것이다(「증찬성심봉원묘비」 말미 심희수첨가 부분).



효창공비 뒷면의 '희수 첨가' 부분

“(...) 오호통재라! 가만히 생각하니 선조께서 세상을 떠나신지 지금 벌써 42년이나 오래되었는데 비석을 세우는 일을 비로소 완성하니 실로 불초한 喜壽의 변치 못한 소치이다. (...) 불초손 喜壽가 삼가 적음.”

② 부친 정자공 심건은 이연경의 문하에서 노수신, 강유선 등과 공부하였다. 이들 세 명은 모두 이연경의 사위가 되어, 동서로서 교유하였다. 노극신이 자기의 딸을 일송과 혼인케 하였다. 부친은 노수신과 동서요, 일송은 노극신의 사위가 되었으니 두 집안의 관계는 돈독하였던 것이다.

③ 모친 광주 이씨는 흥문관 교리 이연경의 따님이다. “자제를 교육시킴에 있어서도 방침이 크게 정해져 있었으니, 직강(直講, 심희수)이 성취한 것만 보더라도 그것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시아버지(심봉원)를 극진히 모셨다.”고 한다(崔岾, 「簡易集」). 최립이 쓴 이 묘갈명을 통해, 일송의 어린 시절이 파락하였다는 설명은 사실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

V. 선조(宣祖) 시기 심희수의 행적

① 임진왜란 때 승지로 중국 땅 요동을 넘나들며 국난극복에 진력을 다하다. 선조의 특별한 총애를 받아 도승지가 되어, 중국 장수들과 협상하고, 왕을 대신해 백성들 앞에 나타나서 위로하는 말을 하였다.

② 선조가 입는 羊皮옷을 하사받았다. 국왕 선조는 일송이 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사를 돌보느라 몸이 상했을 것이라고 하면서, 자신이 입는 羊皮 옷을 벗어 주며 사양치 말라고 하였다(「선조실록」 26/11/25).

③ 왜적과의 싸움을 회피한 武科 급제자들을 합격자 목록에서 제외하자고 건의하여 수용되었다.

④ 대사헌으로 발령받은 즉시 10가지 건의 사항을 왕에게 올렸다(「선조실록」 27/1/9). 그 중에 “요역을 가볍게 하여 근분을 공고하게 할 것(輕徭固本)”, “공도(公道)를 열 것(開公道).”은 주목되는 건의이다.

⑤ 예조판서가 되어, 명나라 장수들을 응대하는 역할을 원만히 수행하였다. 그리고 “한재(旱災)가 극심 하자 한강, 삼각산, 목맥산과 山川霽祀에서 기우제를 지내자(「선조실록」 32/윤4/1).”고 건의하여 실행되었다. 전란 중은 물론, 이후에도 일송에 대한 선조대왕의 신임은 절대적이었다.

VI. 광해군(光海君) 시기 심희수의 행적

① 광해군은 즉위년 3월 6일에 일송을 다시 우의정으로 삼았다. 선조 말년에 좌의정이었다가 한 단계 내려서 우의정으로 재임명된 것이다.

② 일송은 讀書堂 재설치에 반대하고, 사찰에서 서식케 하자고 건의하여 수용되다

③ 왕은 우의정 사직서를 수차 반려하였다. 병고로 출사가 힘든 일송을 광해군은, 정승은 ‘도를 논하고 나라를 경영하면 되지’ 다리 힘의 강약은 본디 따질 필요가 없다’면서 수차의 사직서를 반려하였다.

④ 일송은 태종 때 시행된 바 있던 호패법을 다시 시행해야 한다고 적극 주장하였다(「日記」 3/1/10).

⑤ 친구인 鄭經世에게 보낸 편지로 인해 위기를 맞은바 있다(「日記」 4/4/8~19).

⑥ 京在所는 폐단이 심하므로 재설치에 반대하였다(「日記」 4/10/30).

⑦ 영창대군의 처벌을 요구하였다. 66세의 원임 대신 일송은, 백관을 이끌고 광해군에게 나아가, 영창대군의 처벌을 요구하였다(「日記」 5/10/24 || 6/1/10~24).

⑧ 영창대군을 옹호한 남인 정은(鄭蘊)을 적극 변호하여 귀양에 그치게 하다(「日記」 6/4/24 || 6/6/24). 이는 그가 당색에 구애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⑨ 백성의 가난한 현실에 한숨 짓기도 하였다: “어찌하여 한발로 인한 흉년이 이리도 심한가 / 방 안에서 부부가 마주보고 울고 / 곁에 두 아이 처음 말을 배우면서 / 울며 누더기 옷을 당기며 애써 먹을 것을 달라하네(《傷田家》「一松集」).”

⑩ 許筠이 ‘종계변무(宗系辨誣)를 했다’고 공치사 하자, 심희수는 종계변무는 이미 완료된 사안이라고 하면서 허균의 행태를 비난하였다(「日記」 8/3/3). 허균이 농간을 부린다는 사실은 이미 모든 이들이 알고 있는 바였다(「日記」 6/10/10). 그럼에도 이이첨 등이 펄펄 뛰며 항변하였고, 대간의 탄핵이 심해지자 어쩔 수 없이 일송은 문외출송(門外黜送)되었다.

⑪ 수뢰루인(水雷累人) 심희수는, 3년 간 문외출송 끝에 심하전투의 패배로 인해 放送되었다. 그 후 성 밖에서 우거하면서 다시는 서울 집에 들어오지 않고(「日記」〈심희수졸기〉), 나라를 걱정하며 생을 마쳤다. 放送되어 오늘의 용산 근처 屯之山에 우거하는 동안, 「주역」에서 원용한 ‘수뢰루인’으로 自號하며 여생을 보냈다. 주역의 ‘水雷屯’괘는 고난을 상징한다. 준(屯)은 ‘움직이려고 하나 곤란에 빠지는 상태’로, 일송 스스로 말년의 처지를 은유한 號로 보인다.

VII. 일타홍(一朶紅): 심희수와 관련된 야담(野譚)

일타홍 관련 기록으로 「어우야담(於于野談)」이 최초다. 심희수와 같은 시대를 살았던 유몽인(1559~1623)의 작품이기 때문에 사실로 인정된다. 내용을 보자.

심부원군(심희수)은 기생 한 명을 사랑했는데 이름이 일타홍이었다. 항상 기생을 보고 말하기를, “네가 말하는 평생 사랑하는 사람을 손가락을 꼽아 보거라” 하자 기생이 장난삼아 “심부원군입니다.” 하였다. 심부원군이, “나를 놀리지 말고 사실을 말하라” 하자 기생이 말하기를, “梁熊山입니다.” 하였는데 심부원군에게는 엄지를 굽혔으며, 양양산을 말할 때는 엄지를 반쯤 굽혔다. (심부원군이 싫어할까) 꺼렸기 때문이었다. (...) 심희수가 (양양산을) 만나보고는 ‘서라, 앉으라’ 하기도 하고, 술을 먹고 노래를 들어보더니 말하기를, “일타홍의 정인(情人)이 되기에 타당하다”하였다.

위 「어우야담」에 의하면 일타홍은 ‘양양산’을 좋아한 일개 기생에 불과했지, 파락호 심희수를 성공하게 뒷바라지 했다는 예기 등은 훗날 꾸며낸 이야기임을 알 수 있다. 어우야담의 줄거리가 변개(變改)된 ‘일타홍 얘기’는 30여 가지가 있다.

우리는 기생 일타홍 얘기보다, 일송의 정경부인 光州盧氏의 삶에 더 주목해야 한다. 一松의 청백리로서의 삶에 정경부인 노씨의 공로가 클 것이기 때문이다. 양종재 沈粹는 증조모 노씨를 “집안의 가훈을 받들어 훌륭한 행실이 일가들에게 모범이 되었다(「一松先生墓陰記」)”고 하였다.

IX. 일송상공 심희수는 이런 분이다

① 조선왕조가 임진왜란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이한 선조 때, 일송은 외교의 전면에 나서서 나라를 구하는데 중추적 역할을 하였다. 남쪽에서 이순신 등 武將들과 義兵들이 사력을 다해 왜적을 물리칠 때, 그는 같고 닮은 학문적 실력과 뛰어난 말솜씨, 그리고 친화력을 바탕으로 明나라 조정과 장군들을 상대하여 전황을 유리한 방향으로 기울게 하였다. 일송의 유창한 중국어 실력(「於于野談」〈諸講〉편)도 외교에 큰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난이 끝나고 광해군 때에는 해박한 지식을 가진 노련한 정객으로서, 身病에도 불구하고 국가 정책의 조율과 해결에 큰 역할을 하였다. 병조판서만 빼고, 5조 판서를 두루 역임한 일송은, 청송 심문을 가리켜 “집안 대대로 충의의 전통을 간직해 오면서 시종 나라와 운명을 함께 하였다(「일기」 5/5/15).”고 자부하였다. 평생을 그런 자세로 살았던 것이다.

② 청송 심문의 13정승 중 유일하게 대제학이며 청백리였다. 얼마나 청빈했는지 집이 허물어져 왕이 말(馬)을 주어 수리하도록 했을 정도다(「심희수신도비」·「묘지명」). 일송의 문장력은 선조대 왕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았다. 그리고 광해군 역시 父王을 이어 정승 심희수를 극진히 우대하였으며, 믿고 의지하였다.

③ 일송과 관련된 기생 일타홍의 얘기는 유명하나, 「어우야담」의 내용만이 사실이다. 그 핵심은 ‘일송이 알고 지내는 기생이 한 명 있었다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일타홍이 젊은 파락호 심희수를 점지하여 성공하도록 뒷바라지 했다’는 둥, 다양하게 변개(變改)되었다.



심재가 쓴 〈일송선생묘표음기〉, 증조모 노씨를 모범이 되었다고 평했다.

일송의 조부 효창공은 당대의 명사였으며, 어머니 광주 이씨는 이연경의 따님으로 가정교육이 엄격했다. 우리는 양종재가 쓴 대로, “노씨 부인은 가정의 典範을 보였다(「일송선생묘표음기」).”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정승 심희수를 이해함에 있어 일타홍은 그저 알고 지내는 기생에 불과하며, 의미를 부여할 가치가 없는 것이다. 일송은 ‘일타홍 얘기’처럼 꾸며진 민담으로 상징될 수 없는 ‘크고 위대한 인물’이다.

④ 일송은 세 살 때 부친을 여의고, 17세에 할아버지 심부원군이 별세하였다. 훗날에는 며느리를 먼저 보내는 아픔도 겪는 파란만장한 삶을 살



심희수 부모묘(고양시 원흥동/2020.5.8)

았다. 기록상 ‘심일송’은 ‘풍채가 청수하고 아름다웠다(「象村集」 권11)’고 한다. 이는 현재 남아있는 ‘초상화’를 통해서 우리가 공감하는 사실이다. 미남이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다리가 떨리는 병과 당뇨로 고생하였으나(「선조실록」 39/7/6·24 || 「日記」 즉위년/6/15 || 「日記」 7/11/17), 극심한 고통을 참으며 國事에 전념하였다. 그리고 지인들과 술을 즐길 때면 노래를 잘했다고 한다(「선조실록」 39/9/10). 60세 전후로는 참기 힘들 정도였다. 건습병(蹇濕病) 증세로 고생했던 것이다(「日記」 5/4/28). 75세의 老재상은 죽는 날(「日記」 22.5.17)까지 나라를 걱정하면서 왕에게 “권하고 경계하는 뜻을 진달”하였으니, 만고의 충신이였다.

⑤ 일송의 조부 심부원은 ‘노비종모법’을 주장하고, 종2품의 고관을 지냈으며, 유학 외에도 음률과 의술에도 능했다. 부친 심건은 32세에 충청도 암행어사로 나갔다가 공주의 관사에서 病死하였으니, 그 애석함은 당대는 물론이고 후손들이 지금도 아쉬워하는 대목이다. 이 때 일송은 3세였다. 일송의 후손으로는 입적시킨 아들 첨정 심창, 손자로는 서장관으로 청을 다녀온 심유행, 증손자인 심재는 청에 두 번 사신으로 다녀왔으며, 武將으로 출세한 統制使 심박, 98세를 살았던 심진이 있다. 그리고 현손인 최량·중량·계량 삼형제는 과거에 급제하여 가문을 융성케 하였다.

⑥ 일송은 청송 심씨 가문에 대한 자긍심이 컸다. 서찰에 찍는 낙관에 ‘靑松沈氏’ / ‘喜壽伯懼’라고 새긴 것에서 이를 단적으로 느끼게 한다. 백구는 일송의 字이다.

⑦ 일송은 광해군 때 중국 개인의 史書에 기록된 宗系문제로 인해 3년 간 문외출송 당했으며, 放送된 이후 오늘날 용산 지역인 屯之山에 은거하여 「주역」을 공부하며 여생을 마쳤다.

⑧ 일송의 후손들의 해마다 공의 영정을 포쇄(曝曬)하고 있다. 이 때 직계와 방계의 후손들이 다수 모여 일송의 삶과 위국충정의 마음을 추모하고 있다.

⑨ 공의 시호는 文貞이며, 상주 봉산서원 배향되었다. 저서로 「一松集」이 있다.



진위향교 앞 심창선정비 (2020.5.7)



심희수 낙관



일송을 배향한 상주의〈봉산서원〉

종회탐방

9세조 효창공(휘: 逢源) 종회탐방



沈相厚 회장



〈'은덕사' 에서〉

효창공 묘역의 「은덕사」에 후손들이 모였다. 조선시대에 '목희리'로 불리던 이 곳 묘역은 이날 따라 오던 비가 그치고 화창한 날씨가 종회 탐방을 도와주었다.

◎ 효창공 종회의 구성



〈효창공 묘역〉

있는 분을 중심으로 기록한다. 역대회장은 다음과 같다.

순	이름	재임기간
1대	榮燮	1992~1995
2대	平來	1996~2000
3대	彰來	2001~2002
4대	承龍	2003~2004
5대	相昊	2005~2008
6대	興燮	2009~2016
7대	洪燮	2017~2018
8대	相厚	2019~2020

▶ 종회 임원

顧問：相昊(감찰공) 興燮(온양공) 洪燮(부총관공)
 會長：相厚(감찰공)
 副會長：成來(감찰공) 元燮(온양공)
 監事：元燮(감찰공) 錫圭(온양공)
 總務：載洪(부총관공)
 理事：溫陽公孫：慶燮, 成來, 憲圭,
 副總管公：仁燮, 恒來, 鐘鉉, 文圭,
 監察公：정무, 相來, 雄來, 瑞來, 利燮,



〈효창공 신도비〉

◎ 경기도 고양시 「은덕사(隱德祠)」에서 만난 효창노인(曉窓老人, 友松堂) 심봉원의 후손들 : 청송심씨 효창공과는 심봉원을 중시조로 하는 후손들의 모임이다. 효창공은 청성백 → 안효공 → 공숙공 → 내자시관관공 → 사인공 → 익효공 → **효창공** → 정자공(심건) → 일송상공(심희수)으로 이어지는 큰 인맥의 한 가운데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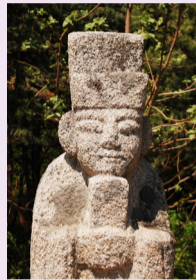
효창공과를 대표하는 인물은 일송상공 심희수로, 선조와 광해군 때의 정승이다. 경기도 고양시 원흥동에 소재한

「은덕사」에 후손들이 모였다. 조선시대에 '목희리'로 불리던 이 곳 묘역은 이날 따라 오던 비가 그치고 화창한 날씨가 종회 탐방을 도와주었다.

◎ **종회 성립** : 종회를 1950년대에 창설 하였으나 종손이 회장 겸 관리하다가 새로 회장을 선출하여 운영하였다. 초창기의 기록이 없어 현재 자료가 남아

◎ 효창노인 심봉원의 삶과 주요 연보

▶ **심봉원의 삶** : ▪ 효창공은 율곡 이이의 할머니인 남양 흥씨의 증모제였다(“沈公珮祖母之從母弟也”). 이 인연으로 율곡은 어려서부터 심봉원의 집을 드나들면서 심씨 집안 사람들과 사귀었다. 이이는 효창공의 서재에 부친 〈우송당기(友松堂記)〉를 짓고, 묘지명도 썼다. 율곡에 의하면 효창공은 “화산(華山, 북한산) 기슭에 집을 짓고 꽃과 풀에 취미를 붙이되, 더욱이 늙은 소나무를 사랑하여 그 집에 현판 붙이기를, ‘우송(友松)’이라 하고 날마다 그 가운데서 구숙됨이 없이 자유롭게 지냈다. 문을 닫고 손님을 사절하였으므로 사람들은 그 얼굴을 보기가 드물었다”고 한다(《심봉원묘지명》 「율곡전서」).



〈효창공묘앞의문인석〉

▪ 「미암일기」로 유명한 유희춘은, 그의 일기(1574.10.22)에서 효창공을 이렇게 평했다. “공의 성격은 조용하고 겸손하였다. 비록 왕의 외척이었지만 그 족속(族屬)에게 시달리지 않았고, 분수에 안주하여 병만 치료하니 사람들이 모두 고상하게 여겼다. 일찍이 좋은 집을 나에게 6, 7년이나 빌려 주어 나에게 대한 덕이 지극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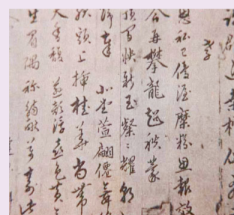
▪ 효창공은 건강을 위해 식사량을 극히 조절하고, 옷을 무게를 달아 입었을 정도였다. 그런 노력으로 병고로 관직을 그만두기도 했으나 노년으로 가면서 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다.

서기	나이	심봉원 주요 연보
1497	1세	출생
1505	8세	부친 별세(사인공)
1537	41세	별시문과 급제
1553	57세	동부승지(정3품 당상관)
1563	67세	동지돈녕부사(종2품)
1573	77세	3월, 대사헌 후보 (중병으로 탈락) 12월, 노비종모법 주장
1574	78세	별세

◎ 정자공 심건의 연보와 배위 광주이씨의 삶

▶ **정자공 심건 연보** : 정자공 묘표에는 공의 별세를 이렇게 표현했다. “양친(효창공 부부)이 살아 계시고 외로운 아들(희수)이 겨우 세 살이며 또한 유복자(창수)가 아직 열 달이 못되니, 사람들의 원통함이 어찌 극심하지 않으랴.”

▶ **광주 이씨의 삶** : 대문장이 최립이 쓴 묘갈명을 통해 알아본다. 흥문관 교리 이연경(李延慶)의 따님인 광주 이씨는 “남편의 상을 당해서는 입에서 말이 끊어지고 오직 죽만 마신 것이 몇 개월이나 되었으며, 항상 삼베옷을 걸치고 지낸 것이 또 무려 여섯 해나 되기도 하였다.” 또 “자제를 교육시킴에 있어서도 방침이 크게 정해져 있었으니, 직강(直講, 심



〈효창공 필적(교학사) 「한국사대사전」〉

희수)이 성취한 것만 보더라도 그것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시아버지(심봉원)를 극진히 모셨다.”고 한다(崔岏, 〈宜人李氏墓碣銘〉 「簡易集」).

서기	나이	심건 주요 연보
1519	1세	출생
1543	25세	사마시(진사)합격
1548	30세	문과 급제
		* 승문원 正字(정9) * 사간원 正言(정6품)
1550	32세	* 충청도 암행어사 * 별세(공주 관사) → 부친 50세, 모친 51세 장자(희수) 3세 유복자(창수) 임신 중

◎ **효창공 종회의 발전을 기원하며** : 고양시의 명당에 자리한 효창공 일가의 묘역은, 원래 효창공 배위이신 경주김씨 일가의 선산이었다. 그런데 정자공 심건 선조가 암행어사로 충청도에 파견되었다가, 공주의 관사에서 별세하였다. 어찌할 바 모르던 효창공이 장인 金顯祖에게 부탁하여 그 선산을 장지로 허락한 것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곳에 처음으로 묻힌 분이 정자공인 것이다.

수재요 촉망받던 아들을 잃은 50세의 효창공은, 본가 때문에 “찾아오는 손님들은 심건의 일에 대해 말하지 마시라.”(「청음집」권40)라고 써서 걸었다고 한다. 누가 그 심정을 헤아릴 수 있으랴. ▶ **선조 책자 발간 희망** : 효창공과 종원들은, 대종회에서 선조들에 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책자들을 출간해서 나눠 줬으면 한다는 희망을 얘기했다. 송조돈목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선조님들의 삶을 알아야 한다는 점에서 좋은 건이라고 하겠다. ▶ **파보 제작** : 효창공 종원들은 여력이 되는대로 ‘파보(派譜)’를 제작할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한다. 지금은 인터넷 시대라고 하지만, 종이로 된 족보를 집안에 ‘모시고’ 있는 것도 큰 자긍심을 줄 수 있기에 그 희망이 실현되기를 기대한다. < **孝창공 신도비** >는 **문화재로** : 이 비는 우선 그 설립연대



〈'은덕사' 에서〉

가 400여 년이나 된다. 비문은 소재 노수신이 지었으며, 전자(篆字)는 김상용이 썼다. 머리 부분인 이수(螭首)는 용 두 마리가 힘차게 여의주를 물고자 약진한다. 대단한 예술품이다. 그리고 비 후면에 심희수의 추기(追記)가 있다. 한국전쟁 때의 총탄 흔적도 간직하고 있는 이 비석은 시급히 문화재로 등록되어 국가의 보호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



〈효창공 신도비 이수〉

자료 제공 : 효창공 종회 고문 洪燮.

2020年 庚子年 春享祭 奉行

<p>시조 춘향제 【양력 4월5일(한식)】 문림랑공 휘:홍부(文林郎公 諱:洪孚)</p>	<p>2세조 춘향제 【양력4월3일(음3월11일)】 합문지후공 휘:연(閤門祗候公 諱:淵)</p>	<p>3세조 춘향제 【양력 4월6일】 청화부원군 휘:용(靑華府院君 諱:龍)</p>	<p>3세조 청화부원군배위 김씨(靑華府院君配位:金氏)</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헌관 : 능광 ▶ 아헌관 : 상희, 규정 ▶ 종헌관 : 흥섭, 상국 ▶ 집례 : 상철 ▶ 대축 : 흥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헌관 : 재구 ▶ 아헌관 : 규정 ▶ 종헌관 : 구형 ▶ 집례 : 언태 ▶ 대축 : 종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헌관 : 상현 ▶ 아헌관 : 상열 ▶ 종헌관 : 인기 ▶ 집례 : 언태 ▶ 대축 : 철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헌관 : 상현 ▶ 아헌관 : 우철 ▶ 종헌관 : 규정 ▶ 집례 : 언태 ▶ 대축 : 철유
<p>4세조 춘향제 【양력4월7일(음력3월15일)】 청성백 휘:덕부(靑城伯 諱:德符)</p>	<p>4세조 배위 청주송씨(淸州宋氏) 【2020년 3월 17】</p>	<p>악은공 춘향제 【4월17일(음3월25일)】 악은공 휘:원부(岳隱公 諱:元符)</p>	<p>인수부윤공파 6세조춘향제 【4월12일(음3월20일)】 양혜공 휘:석준(良惠公 諱:石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헌관 : 재구 ▶ 아헌관 : 규정 ▶ 종헌관 : 정섭 ▶ 집례 : 언태 ▶ 대축 : 흥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례 : 상호 ▶ 초헌관 : 세택 ▶ 아헌관 : 제택 ▶ 종헌관 : 상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헌 : 재대(대구) ▶ 아헌 : 동섭(진주, 악은종회장) ▶ 종헌 : 예택(청송) ▶ 대축 : 수철(안동) ▶ 집례 : 흥섭(청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헌 : 구형 ▶ 아헌 : 흥섭 ▶ 종헌 : 기성 ▶ 대축 : 종혁 ▶ 집례 : 재구
<p>인수부윤공파 6세조 양혜공 배위 【4월12일(음3월20일)】</p>	<p>인수부윤공파 7세조춘향제 【4월17일(음3월25일)】 망세정공 휘:선(忘世亭公 諱:璿)</p>	<div data-bbox="1028 1514 1159 1674">  <p>심갑택 문화이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p> <p>지난 5년여 동안 대종회 문화이사로서 혼신을 다하여 맡은 바 업무에 충실하셨던 갑택 이사께서 2020년 5월 31일자로 문화이사 보임을 퇴임하셨다. 갑택 이사께서는 문화이사로서 종회탐방, 종인탐방 등을 위해 전국을 다니시며 특유의 친화력으로 눈부신 활약을 펼치므로써 전국 종인으로서 더 많은 차이를 받았으며, 대종회의 위상 제고에 일익을 담당하셨다. 또한 각 파종회 제향에도 솔선수범하여 참석하며 청송심씨 일가의 송조돈목을 위하여 선조님들의 업적이 깃든 곳이면 어디든 전국을 누비며 활동하셨다. 이제 문화이사 보임은 사임하셨지만, 풍부한 종사지식과 열정으로 계속 대종회 발전에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갑택 이사님의 헌신적인 노력에 대종회 집행부는 찬사를 보내드리며, 무궁한 건승을 빕니다. 감사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20년 5월 31일 대종회 집행부 일동</p> </div> <div data-bbox="1028 1994 1159 2154">  <p>취임을 축하합니다! 6월1일 심상익 문화이사 발령</p>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헌 : 종혁 ▶ 아헌 : 백섭 ▶ 종헌 : 광보 ▶ 대축 : 흥섭 ▶ 집례 : 재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헌 : 찬구(贊求) ▶ 아헌 : 흥섭(洪燮) ▶ 종헌 : 대식(大植) ▶ 대축 : 종혁(鍾赫) ▶ 집례 : 재구(載求) 		

각종 찬조현황(2020. 3. 26 ~ 2020. 5. 27)

■ 각 찬조 50만 원 이상 찬조 시 2회 사진게재



부사공중회 (회장 재문) 오산 시정공중회 (회장 익섭) 심재섭 (장학재단이사) 심상경 (장학재단이사) 심의철 (전 대종회부회장)

<p>증보, 장학찬조 3백만원 2020년2월</p>	<p>장학찬조 3백만원 2020년2월</p>	<p>장학찬조 1백만원 2020년3월</p>	<p>장학찬조 1백만원 2020년4월</p>	<p>증보찬조 50만원 2020년4월</p>
--------------------------------------	----------------------------------	----------------------------------	----------------------------------	----------------------------------

임원회비

20년도 부회장 회비	300,000	동섭(진주), 석문(경기), 상우(광주)
20년도 이사회비	50,000	태욱(경기), 규일(경기), 영보(서울), 재중(대전), 춘식(서울), 두섭(전주), 언촌(수원), 성태(대구), 은식(서울), 상홍(경기), 정섭(서울), 상구(원주), 재봉(서울), 기섭(서울), 인섭(서울), 봉섭(서울), 재춘(서울), 철유(안성), 삼규(서울), 종복(서울), 창보(서울), 재구(서울), 재웅(서울), 상영(김포), 상배(대구), 상한(서울), 훈(대구), 재홍(청송), 문석(일산), 재룡(청주), 규선(대전), 일섭(대전), 대식(인천), 순섭(안양), 상렬(서울), 원보(김포), 윤섭(김포), 우섭(서울), 훈섭(청송)
19년도 이사회비	50,000	호웅(대구), 은식(서울), 재봉(서울), 원식(서울), 강섭(김포)

증보찬조

500,000	의철(서울)
200,000	원환(수원), 김포군수공중중(회장 흥섭)
100,000	중섭(서울), 언촌(수원), 기섭(서울)
50,000	명기(서울), 우영(광주), 종방(충남), 철용, 기연, 상범(원주), 상왕, 은식(서울)
30,000	용보(부산), 보란(장수), 순식, 호웅(대구), 창구, 병은(분당), 재율(부산), 원섭, 종복(서울), 강섭(김포), 윤섭(김포)
20,000	지효(서울), 달보(부산), 백규(서울), 재웅, 경보
지료증보찬조 5,403,130	

김포군수공 휘:관(諱:慣) 사초



지난 4월 29일 김포시 풍무동 당곡마을에서 김포군수공종회 심흥섭 회장을 비롯한 후손 20여명은 선조이신 군수공 휘: 관(諱:慣, 1587~1659)과 후손 예조참판 심평, 선비 심진현, 남원부사 심수준 등의 묘소에 사초를 모시고 고유제를 지냈다.

김포군수공(諱:慣)은 인조 때 산음현감, 산청, 단성현감을 지내시고 공조좌랑을 지내셨으며, 65세 때인 효종2년에는 김포군수로 부임하여 국왕의 장능 행차 시 절포교 다리를 놓아 행차를 편하게 한 공로로 왕으로부터 활과 화살을 하사 받기도 하셨다.

인수부윤공파 6세조 재각상량식 양혜공 휘:석준(良惠公 諱:石雋) 재각



5월15일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가실리41-5에서 5세조 인수부윤공 휘:징(諱:澄)의 6세조 양혜공 휘:석준(諱:石雋)의 재각 상량식이 있었다.

그동안 양혜공 후손들의 숙원사업이었던 선조님 재각은 양혜공의 묘소 아래 300여평 대지에 40평의 재각이 웅장하게 세워져 일가들의 마음을 흐뭇하게 하였다.

公 告

단오절사 봉행 및 정기총회 개최 연기의 건

1. 당 종회의 발전을 위해 관심과 열성적으로 참여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당일 10시로 예정된 단오절사는 집행부에서 간소하게 진행하겠습니다.
3. 당 종회 정관 제4장 제12조 1항에 의거 2020년 6월 25일 정기총회를 개최하고자 하였으나 최근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모임으로 인해 전염이 될시 종원님들께 큰 누가 될 수 있기에 부득이 잠정 연기하기로 하였으니 종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20년 6월 10일 날자로 조선, 중앙, 동아, 경인일보에 공고됩니다.)

정기총회 일자는 별도로 정하여 알려 드리겠습니다.

주변에 단오절사에 참여하고자 하셨던 종원님들이 계시면 꼭 연락드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20. 5. 28

青松沈氏安孝公派宗會
會長 沈 茂 燮

곡산공파종중 정기총회 개최

10세조(휘:수 諱:鏞) 谷山公派宗中 44回 定期總會



정기총회를 진행 중인 심재갑 곡산공종회 회장

5월 23일 김포시 양촌읍 유현사시로 120번길 29-23 谷山公의 재실인 학운재(鶴雲齋)에서 심재갑 곡산공종회 회장을 비롯한 후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가 개최 되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19년도 결산보고 및 '20년도 예산안 승인 등 정관 일부 개정과 임원선임에 관한 건 등을 만장일치로 의결하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회의를 마쳤다.

(재)청심장학회 장학 운영위원회의 개최



5월 7일(목) 오후5시 (재)청심장학회는 대종회 회의실에서 심오택 위원장 외 5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장학운영위원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2기 청심장학생 선발을 위한 서류심사를 하고, 장학기부금 조성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장학운영위원회 위원 임명



5월 7일 (재)청심장학회 장학운영위원회 임명

심덕섭(沈德燮) (전)국가보훈처 차관 (현)시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원장

인사발령



산림청(2.17) 산림보호국장 심상택



우리은행 상무(2.11) 신탁연금단 심상형



경상북도교육청 퇴직(3.31) 심영수 정책기획관

곡성종회 임원 개선

- 회 장 : 심종식
- 부회장 : 심명섭
- 고 문 : 심상온
- 총 무 : 심우식
- 감 사 : 심영구
- 심희권

▣ 지난호(제142호) 정정

8면 임원회비 재모(온양) 재경(온양)→재모(창원) 재경(창원)

송금안내

★ 인터넷 족보 계좌 ★
청송심씨대중회
농 협 : 301-2267-7857-81

청심장학회가 국가의 동량을 기르겠습니다.

★ 장학재단 기부금 ★
예금주 : 재단법인 청심장학회
농 협 : 301-0256-8973-11

송금안내

임원회비 · 증보찬조 등 입금계좌
청송심씨대중회
농 협 : 301-0107-5873-71